張志淵과 高橋亨의 ‘紙上論爭’에 대하여

A Study on 'the Controversy on a Newspaper' of Chang, Ji-youen(張志淵) and Takahashi Toru(高橋亨)

저자 (Authors)	최재목, 이효진 Choi Jae Mok, 이효진
출처 (Source)	일본문화연구 32 , 2009.10, 515-548 (34 pages) Japanese Cultural Studies 32 , 2009.10, 515-548 (34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아시아일본학회 The Association of Japanology in East Asi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280733
APA Style	최재목, 이효진 (2009). 張志淵과 高橋亨의 ‘紙上論爭’에 대하여. 일본문화연구, 32, 515-548.
이용정보 (Accessed)	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베네치아 카포스카리대학교) 157.138.35.*** 2022/02/08 19:2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張志淵과 高橋亨의 ‘紙上論爭’에 대하여

최재묵* · 이호진**

目 次

서론

제1장 논쟁의 발단

1. 논쟁의 경위

2. 논쟁의 배경이 된 강연 : <經學史上的 雲養集>

제2장 논쟁의 진행 및 논점

1. 논쟁의 진행 과정

2. 각 논쟁별 논점 정리

결론

서 론

이 논문은 張志淵(1864~1921, 호 韋庵, 嵩陽山人)과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 1878 ~ 1967, 호 高橋天室)(이하 다카하시)가 1915년 5월과 6월에 걸쳐 《每日申報》 및 《京城日報》에서 3차례에 걸쳐 벌인 논쟁¹⁾을 원문을 바탕으로 그 시작부터 끝까지를 개괄하고 주요 논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지연은 『朝鮮儒教淵源』(匯東書館, 1922)을 쓴 인물로,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儒學通史’로 일컬어진다.²⁾ 장지연은 旅軒 張顯光(1554~1637)의 12代孫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는 당시 영남의 석학이자 집안의 어른인 悟下 張錫鳳과 四美軒 張福樞의 지도를 받고, 星湖학파의 계통을 이은 性齋 許傳의 제자인 舫山 許薰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또 俛宇 郭鍾錫, 韓溪 李承熙, 晦堂 張錫英을 방문하면서 寒洲학과와

* 영남대 철학과 교수.

** 영남대 대학원 한국학과 석사과정.

1) 다카하시가 “不佞이足下의下問에對하야前後答復함이三回인디”(〈答嵩陽山人(前承)〉, 《매일신보》(영인본) 1915년 6월 4일, 1면)라고 한 부분을 참고로 하여 3차로 구분하였다.

2) 洪元植(2005), 「장지연과 다카하시 도오루의 ‘儒者·儒學者 불이·불일’ 논쟁」, 『오늘의 동양사상』제 13호, 예문서원, 271쪽 참조.

도 두터운 학연을 맺었다.³⁾ 그의 저서『朝鮮儒教淵源』은 《每日申報》에서 1917년 4월 5일부터 같은 해 12월 11일까지 모두 125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이 글은 당시 한국 유학사 연구의 집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일 玄相允(1893~?, 남북)의 『朝鮮儒學史』⁴⁾ 저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다카하시는,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서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근대적 방법론에 입각한 한국 사상사 연구에서 중요한 기초를 놓았으며 해방 이후 한국유학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개념 규정과 범주를 정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부정적, 비판적 평가가 있어왔다.⁶⁾ 다카하시가 1929년에 발표한 『李朝儒學史に於ける主理派主氣派の發達(이조 유학사에 있어서의 주리파·주기파의 발달)』⁷⁾은 본격적인 조선 유학사 연구의 효시이다. 이 글은 한국 유학사를 근대적 방법으로 서술한 첫 논문으로써⁸⁾ 광복 이후 한국 유학사 전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해방 이후의 최초로 조선유학사를 정리한 현상윤의 『朝鮮儒學史』(1949) 및 裴宗鎬(1919~1990)의 『朝鮮儒學史』(1974)에서 다카하시가 주창한 ‘主理·主氣’ 등의 사상사 서술방법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⁹⁾

장지연, 다카하시는 한국 유학사 서술에 주요한 기틀을 잡은 인물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한국 유학사를 보는 시각은 매우 다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紙上 위에서 벌어진 논쟁이다. 이 논쟁은 ‘儒者와 儒學者를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시작해서 ‘성리학의 開祖 문제’, ‘한·송대의 유학 문제’ 등의 한국 유학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논의들을 3차례에 걸친 문답으로 전개되었다¹⁰⁾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 논쟁

3) 琴章泰·高光植(1989) 『續儒學近百年』, 驪江出版社, p. 235

4) 玄相允(1949) 『朝鮮儒學史』, 民衆書館.

5) 崔英成(1997) 『韓國儒學思想史』V 아세아문화사, p.254

6) 다카하시를 일제 어용학자로 규정한 것은 尹絲淳의 「高橋 亨의 韓國 儒學觀 檢討」, 『한국학』12, (영신아카데미한국학연구소, 1976)가 그 시작이다. 이러한 평가는 후학들에 의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최근 다카하시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洪元植(2005), 「장지연과 다카하시 도오루의 ‘儒者·儒學者 불이·불일’ 논쟁」, 『오늘의 동양사상』 제13호, 예문서원 : 박홍식(2005), 「다카하시 도오루의 조선 양명학 연구에 관한 소고」, 『오늘의 동양사상』 제13호, 예문서원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7) 高橋亨(1929) 『李朝儒學史に於ける主理派主氣派の發達』, 『朝鮮支那文化の研究 : 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第二部論纂第一輯』, 刀江書院.

8) 이형성(2001) 「다카하시 도루의 한국 유학관 연구」,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유학사』, 예문서원, p. 22쪽.

9) 朴性淳(2002), 「高橋亨의 朝鮮儒學史 研究와 그 反應에 대한 檢討」, 『韓國史學史學報』6, 한국사학사학회의 3. 主理派·主氣派 區分法의 受容 樣相' 참조

10) 본론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논쟁의 전개 과정을 밝혀두면 다음과 같다.

【표1】 紙上論爭의 전개 과정

에서 제기된 관점은 실제로 두 사람의 유학사 서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¹¹⁾ 따라서 두 사람의 논쟁은 당사자들의 유학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현대로 이어지는 한국 유학사 연구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하나의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다.

장지연과 다카하시 사이에 벌어진 논쟁은 ‘紙上論爭’, ‘紙上論端’, ‘儒者·儒學者 不二·不一 論爭’ 등 다양하게 불려 왔다. ‘紙上論爭’이라는 명칭은 윤사순의 『高橋亨의 韓國 儒學觀 檢討』에서 처음 등장한다.¹²⁾ 윤사순은 이 논문에서 다카하시의 생애를 서술하면서 짚막하게 장지연과의 논쟁을 언급한다. 다음으로 ‘紙上論端’이란 명칭은 다카하시의 생애를 담은 『高橋亨先生年譜略』¹³⁾에서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儒者·儒學者 不二·不一’ 논쟁이란 명칭은 장지연과 다카하시의 논쟁을 본격적으로 다룬 홍원식의 논문 『장지연과 다카하시 도오루의 ‘儒者·儒學者 불이·불일’ 논쟁』¹⁴⁾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紙上論端’의 ‘論端’은 우리말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다.¹⁵⁾ 그리고 ‘儒者·儒學者 不二·不一’ 논쟁은 전체 논쟁을 포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

번호	차수	논쟁자	기사 제목	범주	출전	일자	참고
1		미상	經學史上의雲養集	논쟁의 시발점	每日申報	1915/05/15	×
2	1차	嵩陽山人	疑義請質	下問 1	每日申報	1915/05/18	×
3	"	"	疑義請質 第二		每日申報	1915/05/19	×
4	"	"	疑義請質 第三		每日申報	1915/05/20	×
5	"	"	疑義請質 第四		每日申報	1915/05/21	×
6	2차	嵩陽山人	??	下問 2	京城日報	1915/05/24	×
7	1차	高橋天室	答嵩陽山人	答 1	每日申報	1915/05/25	○
8	1차	高橋天室	??		京城日報	??	×
9	1차	高橋天室	??		京城日報	??	×
10	3차	嵩陽山人	??	下問 3	京城日報	??	×
11	3차	嵩陽山人	更問疑義于 高橋先生	下問 4	每日申報	1915/05/27	○
12	2차	高橋天室	答嵩陽山人	答 2	每日申報	1915/06/02	○
13	3차	"	答嵩陽山人	答 3	每日申報	1915/06/03	○
14		"	答嵩陽山人(前承)	마지막 답변	每日申報	1915/06/04	○
15		嵩陽山人	又答高橋先生所答(一)	下問 5	每日申報	1915/06/05	○
16		"	又答高橋先生所答(二)		每日申報	1915/06/06	○

※ 음영부: 원문이 밝혀지지 않은 자료임, 참고: 『張志淵全書』8권에 수록되어 있는지의 여부.

- 洪元植(2005) 「장지연과 다카하시 도오루의 ‘儒者·儒學者 불이·불일’ 논쟁」, 『오늘의 동양사상』제 13호, 예문서원, p. 272
- 尹絲淳(1976) 「高橋 亨의 韓國 儒學觀 檢討」, 『한국학』12, 영신아카데미한국학연구소 p.18
- 大谷森繁·中村完共編(1975) 「高橋亨先生年譜略」, 『朝鮮學報』第14輯, 朝鮮學會.
- 洪元植(2005) 「장지연과 다카하시 도오루의 ‘儒者·儒學者 불이·불일’ 논쟁」, 『오늘의 동양사상』제 13호, 예문서원 p. 271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論端’으로 검색했을 경우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論壇의 誤記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http://www.korean.go.kr/08_new/index.jsp, (검색일 : 2009. 08. 13)]

서 이 논문에서는 장지연과 다카하시가 紙上에서 벌인 논쟁을 통칭하는 관점에서 ‘紙上論爭’으로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장지연과 다카하시의 지상 논쟁에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洪元植의 『장지연과 다카하시 도오루의 ‘儒者·儒學者 불이·불일’ 논쟁』이 유일하다. 이외 李承律이 『日帝時代 ‘韓國儒學思想史’ 著述史에 관한 一考察』¹⁶⁾에서 부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단편적이긴 하나 尹絲淳, 崔英成 등도 ‘紙上論爭’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에 학계에 발표된 ‘紙上論爭’ 관련 논문에서는 논쟁의 계기가 된 다카하시 측의 강연, 즉 1915년 5월 13일 金允植의 수상 축하석에서 『經學史上의雲養集』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15일 《매일신보》에 게재 된 내용이 충실히 제기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대다수 논문들에서는 『張志淵全書』¹⁷⁾에 의거하여 논쟁 내용을 발췌하고는 있지만 장지연이 《매일신보》에서 다카하시에게 한 1차 질의¹⁸⁾가 누락되어 있는 점을 간과하고 보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장지연과 다카하시 사이에 벌어진 ‘지상논쟁’의 전반을 개괄하기 위해 「Ⅱ. 논쟁 발단의 원인」을 서술하고 「Ⅲ. 논쟁의 진행 및 논점」을 1차·2차·3차로 나눠서 그 논점 별로 정리해 이 논쟁이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논쟁의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피기 위해 종래 학계에 소개되지 않았던 다카하시의 강연과 누락된 1차 질의를 《매일신보》(영인본)에서 찾아내 보완하였다. 논쟁은 주로 《매일신보》 지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외 《京城日報》에서도 논쟁이 몇 차례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⁹⁾ 하지만 현재 《경성일보》는 입수가 어려운 상태²⁰⁾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원본이 확인된 《매일신보》에 한정하여 장지연과 다카하시의 논쟁을 다루고자 한다.

16) 李承律(2004)『日帝時代 ‘韓國儒學思想史’ 著述史에 관한 一考察』, 『동양철학연구』제37집, 동양철학연구회.

17) 張志淵(1979) 『張志淵全書』8, 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研究所.

18) 【표1】의 2, 3, 4, 5번을 참고.

19) 다카하시의 답변 중『五月二十四日京城日報紙上の 第二下問을 拜讀하고』(高橋天室, <答嵩陽山人>,《매일신보》(영인본) 1915년 6월 2일, 1면)와 『其二其三是 日文으로써 京城日報에 寄하야』(高橋天室, <答嵩陽山人(前承)>,《매일신보》(영인본) 1915년 6월 4일, 1면)에서 《경성일보》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20) 영인본 《京城日報》에도 1915년 9월 이전 자료는 누락되어 있다. 현재 국내외의 소장처를 조사 중에 있으며, 입수 되는대로 보완할 예정이다.

제1장 논쟁의 발단

장지연과 다카하시가 紙上論爭을 벌이게 된 계기는 우연히 장지연이 다카하시의 강연을 기록한 신문 기사를 보게 된 것이다. 이 기사는 <經學史上的 雲養集>이라는 제목으로 1915년 5월 15일 《매일신보》에 실렸다. 이 강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 소개된 바가 없었다. 이 논문에서는 「1. 논쟁 발단의 경위」에서 강연에서부터 첫 질문까지의 경위를 살펴보고, 「2. 논쟁의 배경이 된 강연 : <經學史上的 雲養集>」에서는 논쟁의 주요 논점을 짚어볼 것이다.

1. 논쟁의 경위

1912년에 다카하시는 잡지 『朝鮮及滿洲』에 총 6회에 걸쳐 「朝鮮儒學大觀」을 발표했다. 이로부터 5년 후 장지연의 『朝鮮儒教淵源』은 1917년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두 유학사 중 어느 한 곳도 1915년에 벌어진 논쟁에 대해서 언급한 곳은 없다.

다카하시 측에서 찾을 수 있는 ‘지상논쟁’에 관한 자료로는 그의 생애를 연도별로 정리한 「高橋亨先生年譜略」이 있다. 연보에는 논쟁에 대해 「위암 장지연과 ‘孔子敎와 儒學(宋學)’에 관해 ‘지상논쟁’을 시작하였지만, 대구로 전임을 감에 따라 종결짓지 못하였다.²¹⁾」라고 짧막하게 언급되어있다.

그러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몇 번이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려면 『장지연전서』8권에 716쪽부터 731쪽까지 실린 「高橋亨과의 問答」편을 참고로 해야 한다. 여기에는 논쟁의 1차 자료가 전사되어 있기 때문에 다카하시 측에 비해서 논쟁에 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하지만 전서에는 논쟁의 중간인 1915년 5월 25일 다카하시의 답변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논쟁을 불러일으킨 근본 원인이 되는 다카하시의 강연 내용에 관해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²²⁾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서에 실린 1915년 5월 25일 다카하시의 답변을 역추적한 결과, 같은 해 5월 18일에 장지연이 첫 질문을 했음을 알아낼 수 있었다.²³⁾ 보다 구체적인 자

21) 「張子淵韋菴との間に孔子の敎と儒學所謂宋學につき紙上 論端を開始せしが 大邱轉任によりて未了に終わる。」(大谷森繁・中村完共編(1975), 「高橋亨先生年譜略」, 『朝鮮學報』第14輯, 朝鮮學會, 6쪽 참조).[밑줄 부분은 ‘韋菴’이 뒤에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張子淵’은 ‘張志淵’의 오자로 보인다.](인용자).

22) 洪元植(2005), 「장지연과 다카하시 도오루의 ‘儒者·儒學者 불이·불일’ 논쟁」, 『오늘의 동양사상』제 13호, 예문서원, 285쪽 각주(4) 참조.

료를 찾기 위해 영인본 《매일신보》를 조사한 결과, 첫 질문은 총 4회로 5월 18일, 19일, 20일, 21일에 연속하여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장지연의 첫 질문인 <漫筆瑣語(三九)>(《매일신보》, 1915년 5월 18일)의 첫 구절에 보면 그가 질문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다.

頃於報上에得見高橋亨氏의所講演한 「經學史上雲養集」問題의一篇則其雄辯宏詞가滔々不渴하야可以見其文學之博洽而莊誦不已也로되然而竊於管見에不能無疑點於其間일시欲逐條質問於高明學士之鑑衡호노니未知肯容賜指教乎否也라²⁴⁾(강조 인용자, 이하 동일)

‘頃於報上’에 ‘得見’하였다는 말로 미루어 봐 이는 다카하시의 강연이 그다지 멀지 않은 날짜로 신문에 실렸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 제목인『經學史上雲養集』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를 단서로 찾아본 결과 《매일신보》1915년 5월 15일자에 <經學史上의 雲養集>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누군가 강연을 기록해 신문에 게재한 것이다. 장지연도 실제 석상에서 강연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매일신보》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질문을 한 것임을 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經學史上의 雲養集>은 이 논쟁의 시작이자, 논쟁 진행의 기본 틀을 제공해 주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논쟁의 배경이 된 강연 : <經學史上의 雲養集>

<經學史上의 雲養集²⁵⁾>(이하 「강연」)은 다카하시가 金允植의 受賞을 축하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에서 발표한 강연이다. 강연으로서만 회자되고 그 실체가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몰랐던 이 강연은 다행히 《매일신보》에 발표되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23) 「(…)昨에人이有하야予에게高明이本月十八日毎日申報至로써予에게儒者儒學者의區別無區別을下問하섯다호는지라(…)」(高橋天室, <答嵩陽山人>, 《매일신보》(영인본) 1915년 5월 25일) 참조.

24) 嵩陽山人, <漫筆瑣語(三九)>,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5월 18일, 1면.

25) 한말의 개화와 관료이자 문장가인 金允植(1835~1922)의 시문집이다. 1913년 문인 鄭崙秀가 교정하고 黃炳郁이 편집, 저자 서문을 붙여 처음 간행했다. 그후 1917년 문인 李承斌·金載聲 등이 呂圭亨의 序와 金澤榮·鄭萬朝의 跋을 붙여 15권으로 재간행했다. 이 책은 한말의 중요한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풍부한 기록을 갖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규장각·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1】 기자미상, 〈經學史上的雲養集〉, 《매일신보》1915년 5월 15일, 2면.

이 기사는 당시 자리에 있었던 《매일신보》 기자가 그 내용을 듣고 핵심을 간추려 신문에 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는 자료의 중요성을 생각해 원문을 전사한 것²⁶⁾을 그대로 실는다.

【자료1】〈經學史上的雲養集〉의 한글 전사

經學史上的雲養集

①著者の儒學에在系統如何

金植子受賞祝賀會席上演

②十三日午後教育俱樂部開金植子受賞祝賀會에서

京城高等普通學校敎諭高橋亨氏는의講演을試히앗더라

③夫孔子의門에는儒者가有히고儒學者는無히앗스니④此가有함은漢代에始히앗고邇來로儒學의研究가益盛히다가遂히⑤宋에至히야一轉히야道學者가되앗스니道學者는力을性理의研究에竭히야枯談에流히고空論에馳히야孔子의道로써獨히學者의事業을爲히고⑥漸히

▲儒敎의實用的 方面을閑却히朝鮮은⑦高麗末葉에至하야儒敎가漸盛히앗스니然이나麗末李朝初에在히야는學者가多히實學을尙히고儒者의鉢를未失히앗더니降히야⑧世宗朝에尹別洞이宋學을太學에敎授함에至히야漸히儒學專攻의端緒를見히앗도다別洞에게學호는者는金江湖오江湖의學을受호는者는其子佔畢²⁷⁾齋오佔畢齋門에出호는者는鄭一龜金寒喧堂의學을受호는者는趙靜庵이라靜庵에至히야道德先生의模樣이略成히고儒者와儒學者가漸分히앗스며次에⑨徐花潭李晦齋李退溪가出함에及히야朝鮮의儒界가明瞭히儒者와儒學者로區劃되앗고⑩末流에至히야儒學者는宋儒의迹을追히야道學先生이되고學究도되야亦管理氣를論히고心性을談히야實事를不究히고眞儒로認許히야

26) 전사 중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으로 처리하였다.

▲程朱에私淑하얏다하고漸히①儒敎主眼되는바의利用厚生의實用的方面과愚夫愚婦에至키까지日常不可離五倫五常仁義禮智의平易한實踐의方面에遠호을不知치못하고其極禮論과湖洛黨으로膠柱의議論을闊호이二百餘年에儒學者流는此에心血을泣盡하얏도다雲養先生은學을鳳棲俞華煥에게受하고鳳棲는經學을老洲吳熙常에게受하고文章을을臺學金邁淳²⁷⁾에게受하고老洲는美湖金元行에게學하고美湖는家學을祖父農巖昌協에게受하고農巖은尤庵宋時烈에게學하고尤庵은學을沙溪金長生에게學하얏스니沙溪는即栗谷李珣의道通을紹호는者이라然디鳳棲의文章師臺山은傳受하마가無하고獨히古물師하얏스니先生經學의系統은實로栗谷에歸하니②栗谷은儒者로써儒學者를兼하야能히儒敎의

▲修養의方面과 實用的方面을併히發揮하고終에道學先生의窠에陷치안이하얏스니即③雲養先生의學問의淵源이道學先生과自同치안이호마를可知홀지로드帝國學士院의雲養集授賞審査要旨에十六私議와八家涉筆를學하야集中第一의大文字오宜히後世에不汚호것이라고稱揚호는能히④先生의立脚地가儒者에在하고道學先生에在치안이하는事를看破호는者이오恐컨디先生의首肯하는바일지다先生은此等雄篇大作特히十六私議에서充分히本領을發揮하야縱橫히世務를論하얏스나其論者가儒敎의精神을未曾離하고必히孔孟의語를引하야典據호바를示하얏고八家涉筆은韓柳歐蘇等八家の文을批評호는間에世務에論及하야古人의八家文評論以外에別生面을開호는者이라然而評호바의文에依하야自히別個의筆致를用호柳文評論과如호는地에擲하야聲이有하고肅殺하야

▲座에秋風이起호는名文章이라雲養集卷十六佛敎贊化會趣旨書와■敎化論에信敎의宣히自由호는事와朝鮮佛敎의再興되事와論論하야宗敎라는것은若其敎를籍하야心術을害하고政事에妨이호는면宜히此를闢호지나然이나若其敎을謹守하야恒心을不失호면皆吾同胞의良民이라何故로此를斥호리오하얏스니此는先生의卓見이能히總督府의對宗敎方針과符節을合호는者이오吾人の歎服하야措호바를能히知치못호는바라朝鮮文章의作家를其業호는바에依하야大抵三家를分호는니曰內製文作家曰科文作家曰古文作家是也라科文은學者

▲半生의心血을 傾注호는바인즉此에由하야古文의法格을自素호는者一近代에多호는是也라先生은文章에在하야金台山の正脈을紹하야純히古文의正格을維持하고縱橫自在호는筆鋒中에서法度의謹嚴을存하고單히頹蕩에係치안이하고加하야文字가豊富하야詩賦論策에往호는時에可치안이하호는無호는니雲養集은文集으로評호는나朝鮮有數의名文章이오今에朝鮮에在하야古文의大家는先生을第一로推치안이하호는者一無호는니雲養集의大談論하야後世에不朽호를得호리라實로先生은儒者로文學者를兼호는現代帝國學界의一實踐라謂호는可호는도다. (번호 인용자, 이하 동일)

②에서 알 수 있듯이 강연은 13일 오후 ‘金子爵受賞祝賀會席上’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다카하시는 京城高等普通學校 교사[敎諭]의 신분으로 「經學史上的雲養集」이라는 주제의 축하연설을 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축하연설의 핵심은 ①에서 보듯 ‘雲養 金允植의 유학에 존재하는[在] 系統은 무엇인가[如何]’라는 한국 사상사의 계통에

27) 1915년 5월 15일 <매일신보>지에는 ‘사람 인’ 변(1)에 ‘마칠 필’(畢)자로 기록되어 있으나 문맥상 김중직의 호인 佔畢齋의 오기(誤記)로 보이므로 수정하였다.

28) 내용상 흐름으로 볼 때 臺山 金邁淳(1776~1840)의 오류인 것 같다.

관한 것이었다. 다카하시는 여기서 한국의 유학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는 데 그 첫째가 儒者·儒學者를 구분하는 일이었다. 다카하시는 이 강연에서 孔門에는 儒者만 있었을 뿐, 儒學者는 없었다고 명확히 구분 짓는다.(③)

다카하시는 儒學者가 처음으로 생겨난 것은 漢代(B.C. 202~A.D. 220)라고 하면서, 이때는 유학의 研究가 발전했을 때라고 한다(④). 이 儒學者는 宋代(960~1279)나라에 와서 道學者로 바뀌게 된다고 주장한다. 다카하시는 도학자에 대해서 ‘性理 연구에 치중한 나머지 세상과는 관련 없는[枯談]이야기로 흘러서 空論이 되고, 공자의 道로서 개인을 위한다(⑤)’고 비판한다. 여기서 볼 때 다카하시는 ‘性理學者=道學者’의 도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조선에 대해서는 유교의 실용적 방면을 무심히 내버려 두었다고 평가한다(⑥).

다카하시는 유교가 고려말엽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당시까지는 儒者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있다고 한다(⑦). 그러나 세종조에 尹別洞²⁹⁾이 宋學을 가르치면서 儒學專攻의 端緒가 보였다고 서술한다(⑧). 여기서 ‘儒學專攻’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을 전공의 학문으로 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유학전공자는 ‘儒者’가 아니라 ‘儒學者’가 되는 것이다.

이어 다카하시는 ‘系統’을 두 분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다.³⁰⁾ 그 첫째는 ‘靜庵→花潭·晦齋·退溪’로 대표되는 계통이다.³¹⁾ 다카하시는 조정암에 이르러서 儒者和 儒學者가 점점 나뉘어지기 시작하며, 서화담·이회재·이퇴계가 나타나면서 조선의 유교는 명료하게 儒者和 儒學者로 경계지어졌다고 한다(⑨). 다카하시는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들 儒學者가 송나라의 유학을 따라 道學先生이 되고 理氣·心性론에 모든 기력을 쏟았다고 비판한다(⑩). 또한 그는 이 儒學者流(=道學先生)가 利用厚生, 實用的 方面 등의 유교의 본질을 도외시 하였다고 비판하며 이것을 黨爭과 연결시켜 해석한다(⑪).

이어 다카하시는 위의 논지와 대조적인 태도로 김윤식의 계통을 이야기한다.³²⁾ 먼저

29) 尹祥(1373~1455). 자는 實夫, 호는 別洞. 1448년 예문관제학으로 성균관박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간 世孫 端宗을 가르쳤다. 性理學과 易學에 밝았으며 후진양성에 힘썼다. 저서에 『別洞集』이 있다.

30) 이 분류법은 이후 다카하시의 논문 『李朝儒學史に於ける主理派主氣派の發達』에서 主理·主氣로 더욱 체계를 갖추게 된다.

31) 다카하시가 주장한 尹祥에서 退溪까지의 계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다카하시가 주장한 윤상에서 퇴계까지의 계통

尹祥[別洞] → 金叔滋[江湖] → 金宗直[佔畢齋] → 鄭汝昌[一齋] → 金宏弼[寒喧堂] → 趙光祖[靜庵]
→ 徐敬德[花潭]·李彥迪[晦齋]·李滉[退溪]

다카하시는 栗谷을 ‘儒者 겸 儒學者’라고 칭송하며(12) 그 가치를 인정한다. 다카하시는 율곡을 수양적 방면과 실용적 방면을 모두 발휘하고 조선의 대부분의 유학자들과 달리 道學先生으로 빠지지 않은 인물로 평가하면서 이를 김윤식과 결부시킨다(13). 즉, 위의 계통에서도 알 수 있듯이 儒者 겸 儒學者인 율곡의 學을 이어받은 김윤식은 그 학문의 연원이 道學先生과 같지 않으므로(14), 儒者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³²⁾

『강연』은 비록 신문 상에 실린 짧은 글이지만, 이상에서 보듯이,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가 이 『강연』에서 지적한 ‘계통’이나 ‘당쟁’과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주요 논점이기도 하다.

『강연』에 나타나는 다카하시의 논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經學史上의 雲養集>의 주요 논점	관련 논쟁
①	儒者和 儒學者는 구별된다	1차 논쟁 3차 논쟁
②	儒學者가 출현한 것은 漢代이다	1차 논쟁 2차 논쟁
③	儒學者는 宋代에 가서 道學者로 바뀌었다	1차 논쟁 2차 논쟁
④	宋學이 世宗 때 들어오면서 조선에 儒學 專攻의 단서가 보인다	1차 논쟁
⑤	靜庵을 거쳐 花潭·晦齋·退溪에 이르러 儒學界가 儒者和 儒學者로 완전히 구분되었다	1차 논쟁 2차 논쟁
⑥	조선 후기 儒學者들이 실용·실천적 논의를 하지 않고 송학(理氣·心性論)에 몰두하여 道學先生이 되며, 이것이 분당을 야기했다	1차 논쟁 3차 논쟁
⑦	栗谷은 儒者이면서 儒學者이므로 그 학통을 이어받은 金允植은 儒者라 할 수 있다	1차 논쟁

【표4】〈經學史上의 雲養集〉의 주요 논점

①~⑦까지의 논점은 장지연의 1차 질의에서 그대로 비판 대상이 된다. 특히 장지연이 가장 문제로 삼은 부분은 ①이다. 이 문제는 1차 논쟁에 그치지 않고 3차 논쟁에 가서 다시 논의된다. ②, ③의 문제와 ⑤의 문제는 2차 논쟁에서 깊게 논의되며, ⑥의 문제는 3차 논쟁에서 한국 유학사 전반에 관한 비판으로 확대된다.

32) 다카하시가 주장한 栗谷에서 金允植까지의 계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다카하시가 주장한 栗谷에서 金允植까지의 계통

李珣(栗谷) → 金長生(沙溪) → 宋時烈(尤庵) → 金昌協(農巖) → 金元行(美湖)
→ 經學: 吳熙常(老洲) ↘ 俞莘煥(鳳棲) → 金允植(雲養)
文章: 金邁淳(臺學) ↗

33) 이후 논의되는 이야기는 김윤식의 저서를 찬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논의 전개상 불필요한 부분이므로 생략한다.

이 강연이 김윤식의 축하 강연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카하시의 목적은 김윤식에 대한 호의적인 저술이 목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내용 속에서 다카하시는 儒者와 儒學者를 구분하고, 송학을 비판하며, 퇴계의 맥을 잇는 후학들이 도학선생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장지연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紙上에서 수차례나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는 논쟁을 야기하게 된다.

제2장 논쟁의 진행 및 논점

장지연과 다카하시의 논쟁은 첫 질문인 1915년 5월 18일부터 마지막 질문인 같은 해 6월 6일까지 총 20여일에 걸쳐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에서 진행되었다. 이 논쟁은 크게 3차례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속에 담긴 논점도 10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논쟁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하나의 기사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논점이 뒤섞여 있으며, 그 순서 역시 시간 순으로 나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1. 논쟁의 진행 과정」에서 원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논쟁을 1·2·3차로 구분하여 재구성하고, 「2. 각 논점별 논점 정리」에서는 각 차수별 주요 논점을 다시 항목으로 구분해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1. 논쟁의 진행 과정

다카하시는 「강연」에서 한국 유학사 서술에 관해 크게 7가지의 관점을 제기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내용이 한국 유학사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쓰여졌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매일신보》고정 필진으로 있던 장지연³⁴⁾은 다카하시의 기사를 접하고 그가 ‘한국 유학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해³⁵⁾ 신문 상에 공식적으로 疑義請質을 기고하게 되었다.

장지연은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총 5회에 걸쳐 다카하시에게 질문했으며, 그 신문기사의 수만 하더라도 10여 편에 이른다. 다카하시의 답변 역시 총 3회에 걸쳐 진행

34) 장지연은 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의 초빙 제의를 두 번 거절하였지만 1914년 12월 이후 객경(客卿)이란 필명으로 《매일신보》에 글을 쓰기 시작, 1918년 7월까지 무려 730여 편을 상회하는 분량의 글을 투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평관(1987), 「張志淵 詩世界의 변모와 사상」, 『韓國漢文學研究』9, 韓國漢文學會, 378쪽 참조].

35) 장지연은 다카하시의 조선 유학사 서술, 왜곡에 자극받아 『朝鮮儒敎淵源』을 썼다고 알려져 있다.[이동희(2007),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의 특징에 대하여 -다카하시의 「조선유학대관」과의 비교-」, 『한국학논집』제35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82쪽 참조]

된다. 그러나 다카하시의 답변이 장지연의 질문보다 조금씩 늦게 게재되었기 때문에 【표1】과 같이 요일 순으로 정리하면 그 내용이 매끄럽지 못하다. 게다가 질문과 답의 순서가 대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논문에서는 논쟁의 흐름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해 논쟁을 ‘1차, 2차, 3차’와 ‘논쟁의 마무리’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1·2·3차로 나눈 것은 다카하시의 답변에서 “不佞이足下의下問에對하야前後答復함이三回인디”라는 답변에 근거한다. 그리고 “第二下問을 拜讀하코”³⁶⁾, “第三第四下問을 拜讀하코”³⁷⁾라는 답변에서 장지연의 질문은 4번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고, 다카하시가 第三, 第四下問을 6월 3일 <答嵩陽山人>에서 같이 언급한 것으로 볼 때 마지막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 번 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第一下問과 이에 대한 답변을 1차로, 第二下問과 이에 대한 답변을 2차로, 第三·第四下問과 이에 대한 답변을 3차로 하여 총 1·2·3차로 나누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3차 논쟁 중 다카하시의 답변에 대한 장지연의 답변이 한 번 더 이어지므로 이것을 묶어서 함께 정리한다. 마무리 부분에서는 다카하시가 이 논의를 끝내고자 한 6월 4일 <答嵩陽山人>을 정리하한다.

3차에 걸친 논쟁의 원문이 되는 기사와 주요 논점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차수	논쟁자	게재 연월일	주요 논점
1차 논쟁	장지연	《매일신보》1915년 5월 18·19·20·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儒者·儒學者 구별 漢代의 儒學 宋代의 儒學 儒學者의 枯談·空論 조선 성리학의 개조 화담·회재·이퇴계와 율곡에 대한 시각
	다카하시	《매일신보》1915년 5월 25일	
2차 논쟁	장지연	(《경성일보》1915년 5월 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漢 이후 유학을 보는 관점 양명학의 문제 정암 이후의 조선 유교
	다카하시	《매일신보》1915년 6월 2일	
3차 논쟁	장지연	(《경성일보》1915년 ?월 ?일) 《매일신보》1915년 5월 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儒者·儒學者 구별에 관한 제논의 한국 유학사에 대한 비판 용어의 문제
	다카하시	《매일신보》1915년 6월 3일	
	장지연	《매일신보》1915년 6월 5·6일	
논쟁의 마무리	다카하시	《매일신보》1915년 6월 4일	

【표5】 1차·2차·3차 논쟁 정리 [* () 안에 든 기사는 원문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음.]

36) 高橋天室, <答嵩陽山人>, 《매일신보》(영인본) 1915년 6월 2일, 1면.

37) 高橋天室, <答嵩陽山人>, 《매일신보》(영인본) 1915년 6월 3일, 1면.

장지연은 1915년 5월 18일《매일신보》에 ‘儒者와 儒學者의 구별이 있느냐’에 관한 주제로 다카하시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장지연이 5월 18일에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³⁸⁾ 《매일신보》를 확인해 보면 5월 18일뿐만 아니라 19일, 20일, 21일 총 4회에 걸쳐 ‘疑義請質’이라는 부제로 질문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5월 18일자 질문에는 부제가 달려있지 않은데, 5월 19일자 『漫筆瑣語』에 ‘疑義請質 第二’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5월 18일자가 ‘疑義請質 第一’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카하시의 경우 지인을 통해 장지연의 질문을 알았다³⁹⁾고 하였다. 이때는 5월 24일자 《경성일보》에 실린 장지연의 질문을 포함해서, 이미 5편의 글이 신문 상에 실려 있을 때였다. 다카하시는 25일 《매일신보》를 통해 第一下問에 대해 답변을 한다. 그리고 6월 2일 第二下問을 읽고 답을 한다. 그 다음날인 6월 3일 第三·第四下問에 대한 답을 하고 6월 4일 논쟁의 마무리를 지으려 시도한다.⁴⁰⁾ 장지연은 6월 5일과 6일에 걸쳐 다시 다카하시에게 의견을 개진하나, 다카하시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는다. 이로써 20여 일 간 紙上을 통해 전개되었던 논쟁이 끝나게 되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지상논쟁’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그 안에 전개되었던 주요 논점만 해도 10여 가지에 이른다. 논점 하나하나에 따른 장지연과 다카하시의 관점은 대조적이며, 논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팽팽하게 진행된다.

2. 각 논쟁별 논점 정리

1) 1차 논쟁

1차 논쟁은 1915년 5월 18·19·20·21일 《매일신보》에 실린 장지연의 〈漫筆瑣語〉 39~42회와 같은 신문 25일에 실린 다카하시의 〈答嵩陽山人〉을 중심으로 한다.

1차 논쟁에서는 ‘儒者·儒學者의 구별’ 문제를 시작으로 하여, ‘한대의 유학’ 문제, ‘송대의 유학’ 문제, ‘유학자의 枯談·空論’ 문제, ‘조선 성리학의 開祖’ 문제, ‘花潭·晦齋·退溪 및 栗谷’에 관한 문제 등 총 6가지의 큰 논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1차 논쟁

38) 『張志淵全書』8권 716쪽에 수록된 〈答嵩陽山人〉에서 다카하시가 “木月十八日毎日申報紙로써(…)”라고 한 구절에서 유추했던 것으로 보인다.

39) 『(…)昨에人이有호야予에게高明이木月十八日毎日申報至로써予에게儒者儒學者의區別無區別을下問호섯다호는지라(…)』(高橋天室, 〈答嵩陽山人〉, 《매일신보》(영인본) 1915년 5월 25일) 참조.

40) 『(…)既히意中을悉호았스즉다시載書호意가無호노라』(高橋天室, 〈答嵩陽山人〉, 《매일신보》(영인본) 1915년 6월 4일).

은 <經學史上의 雲養集>의 직접적인 반박이자 앞으로 진행될 논의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1차 논쟁에서 제기된 6가지의 논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儒者·儒學者의 구별

다카하시의 『강연』에 대해 장지연이 우선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儒者·儒學者 구별』이다. 이 논의는 앞으로 전개되는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논점이기도 하며,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로 끝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장지연은 儒者和 儒學者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⁴¹⁾ 그리고 그 근거로 ‘字書’를 인용해 儒者是 學者를 의미한다고 말한다.⁴²⁾ 이것은 다카하시가 儒者和 儒學者를 구분한 데 대한 정면적인 반박이며, 질문의 계기이기도 하다.

다카하시는 儒者和 儒學者의 구분이 확실하다는 것을 天人, 神人, 仙人과 天學人, 神學人, 仙學人의 구분을 통해 주장한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儒學者란 ‘訓詁學者’와 ‘性理學者’임을 명백히 밝힌다.⁴³⁾ 다카하시에게서 訓詁學者와 性理學者는 유교를 전공하는 학자인 것이다. 그는 이 두 가지 학문과 구분하여 공자의 학문을 ‘元來學’⁴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다카하시는 공자의 교육목적은 제자들이 유교의 도를 얻어서 ‘修己治人’하는 것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도를 얻어 ‘실천’하는 것이 공자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카하시에게 있어서 훈고학자와 성리학자는 궁리할 뿐 실천하지 않으므로 수기치인을 실천한 공자와 같은 儒者の 범주에 넣을 수 없는 것이다.

41) 「余는聞儒者는即學者之代名詞라故로字書에曰儒는學者之稱이라하니儒者與儒學者之別이抑有其說歟아(…)儒者는學者在下之稱이오似不可對而分離者也라今에以儒者儒學者로區別分析은未知其意義之何居也라愚見이淺短에胸頓無故로所欲一質於高明學士之具眼也하노라(…)」(嵩陽山人, <漫筆瑣語(三九)>,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5월 18일, 1면).

42) 『論語』, 「雍也」편 “子謂子夏曰, 女為君子儒, 無為小人儒。”에 대한 朱子의 주(『論語集註』) “儒, 學者之稱. 程子曰, 君子儒為己, 小人儒為人.”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떠한 字書인지는 불분명하다.

43) 「(…)天人이라云흐은如天之人을謂호이오天學人이라云흐은旁門外道도亦謂호이오神人이라云흐은道德之明神을謂호이오神學人이라云흐은巫覡의類를謂호이오仙人이라云흐은神仙을謂호이오仙學人이라云흐은 煉丹御女之學을爲호는者를謂호이니予의儒學者라云흐은訓詁學者와性理學者를指호이라(…)」(高橋天室, <答嵩陽山人>, 《매일신보》(영인본) 1915년 5월 25일, 1면).

44) 다카하시는 ‘원래학’이란 의미를 공자가 ‘易·詩·書·禮·樂·春秋’로 제자를 가르친 것으로 정의했다(高橋天室, <答嵩陽山人>, 《매일신보》(영인본) 1915년 5월 25일, 1면 참조).

장지연은 이와 같은 다카하시의 주장에 재 질문을 하게 된다. 이로써 ‘儒者·儒學者’ 구분 논쟁은 『3) 3차 논쟁』에서 다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2) 漢代 儒學의 문제

다카하시는 『강연』에서 ‘한대’에 처음으로 유학자가 생겨났으며, 유학의 연구가 발전했다고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장지연은 秦나라의 焚書坑儒 사건 이후에 유학이 시련을 겪다가 동중서 등의 인물에 의해서 강연되며 주창되어서 한나라에 와서 ‘復活’한 것으로 보았다.⁴⁵⁾ 즉, 유학의 연구가 한나라에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공맹의 학과 동일한 것을 한나라에 와서 다시 부활시킨 것이라는 관점이다. 장지연은 이렇듯 유학을 하나의 큰 흐름 안에서 파악하고 서술하려 하는 입장이었다.

다카하시는 5월 25일자 <答嵩陽山人>에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한에서 송까지의 기간까지 문제를 다룬 6월 2일자 <答嵩陽山人>과 함께 『2) 2차 논쟁』에서 다시 다루어진다.

(3) 宋代의 儒學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다카하시는 『강의』에서 儒學者가 송대에 道學者로 ‘一轉’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지연은 堯·舜·禹·湯·文·武·周·孔의 학이 곧 道學이라고 하면서 ‘儒學=道學’이라고 규정한다.⁴⁶⁾ 이는 다카하시가 ‘道學者(道學先生)’란 용어를 실용적 측면을 무시하고 故談·空論에 빠진 이들에게 사용하는 것과 대조적인 용어 사용법이다.⁴⁷⁾

장지연은 한나라에 부활한 유학이 이후 그 기세가 기울다 송나라에 諸儒들이 출현함에 따라 다시 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장지연은 다카하시의 주장처럼 송대에 一轉하여 도학이 된 것이 아니라 유학의 道가 송에 와 다시 闡明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카하시에 있어서 송대의 學者는 ‘心性理氣’의 연구에 몰두하는 ‘哲學者’일 뿐 儒者

45) 「蓋漢承秦亂에五經이散佚於灰燼之餘하고儒家 | 經一大劫運故로賈誼董舒晁錯等이起호아講明遺經하며主倡儒道호아儼然爲一世模楷호니儒學之述이至漢而復活矣호非自漢而始也라豈孔孟學之外에別立一學者歟아」(嵩陽山人, <漫筆瑣語(四〇)>,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5월 19일, 1면).

46) 「自堯舜禹湯文武周孔으로其相傳之學이即道學也호儒學之外에非別有所謂道學也호自漢以來로道學이衰微欲墜호다가有宋諸儒氏出而復爲闡明而已호非一轉而爲道學也라」(嵩陽山人, <漫筆瑣語(四〇)>,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5월 19일, 1면).

47) 이처럼 장지연과 다카하시는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이 다르다는 근원적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2) 2차 논쟁』에서 더욱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는 될 수 없었기 때문⁴⁸⁾에 장지연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와 같은 논쟁을 통해 장지연이 유학을 하나의 맥락에서 통찰하고자 했다면, 다카하시는 ‘실천’이라는 큰 기준점을 두고 또 그 안에서 특징에 따라 ‘훈고학’과 ‘성리학’ 등으로 나누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儒學者의 枯談·空論 문제

다카하시는 유학이 조선에 들어와 儒學者들이 성리의 연구에 매달려 현실을 도외시한 까닭으로 道學者가 되고 그 논의가 故談·空論으로 흘렀다고 비판한다.

장지연은 다카하시의 성리학자 비판⁴⁹⁾에 대해서 그것은 후세 俗儒들의 이야기이지 眞儒[眞道學者]의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다카하시가 말하는 ‘枯談·空論’은 俗儒[腐儒]들의 행실을 도학자로 오해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⁰⁾

다카하시는 5월 25일자 답변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 유학의 ‘枯談·空論’ 문제는 다카하시가 주장하는 ‘黨派性’⁵¹⁾과 깊은 연관이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다카하시는 ‘3차 논쟁’ 안에서 한국 유학의 枯談·空論과 당파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2차, 3차 논쟁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논쟁’ 안에서의 핵심 논점으로 부각되지는 못하였다.

(5) 조선 성리학의 開祖를 누구로 볼 것인가

다카하시는 유학을 공맹의 선진유학[元來學], 훈고학, 주자학, 양명학 등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이 들어온 시기와 성리학이 들어온 시기는 명확히 구분을 한다. 다카하시에 의하면 전자는 안향에 의해서⁵²⁾이며 후자는 윤상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장지

48) 『宋學에至호야는呶々를不要호고孔門에이즉理氣의說이有함을不聞호았스니宋學者는儒者로自稱호았스나實은心性理氣의研究를畢生의事業으로호는哲學者ㅣ라故로予는此도亦儒學者라稱함이라』(高橋天室, <答嵩陽山人>, 《매일신보》(영인본) 1915년 5월 25일, 1면)

49) 다카하시는 성리학자(=송학자)들을 道學者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힘을 性理의 窮究에 모두 써버리고 空論을 일삼아 공자의 실용적·실천적 측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본문 ‘II. 논쟁 발단의 배경’ 참조).

50) 「此는後世俗儒近腐之學者오非眞道學者之流也라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가是道學聖人而曷嘗有枯談空論之事乎며宋之周程張朱諸賢이皆道學君子而曷嘗有枯談空論之說乎아此는見腐儒俗士之行而恐誤認於道學者也라」(嵩陽山人, <漫筆瑣語(四一)>,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5월 20일, 1면).

51) 다카하시는 한국 유학의 특징을 대체로 ①주자학 일변도의 사상적 단조로움, ②사상적 종속성, ③당파성으로 정의하였다. [崔英成(2000), 「高橋亨의 韓國儒學觀 研究」, 『哲學研究』第74輯, (大韓哲學會, 162쪽 참조)]

연의 경우 ‘儒學=性理學’이기 때문에 유학이 들어온 시기는 성리학이 들어온 시기와 동일하게 된다.

장지연이 문제 삼은 다카하시의 발언은 ‘麗末李朝初에는 儒學者가 있었으나 世宗朝尹別洞 이 宋學을 들여온 후 유학전공의 단서가 보였다하여 성리학이 들어온 시기를 世宗祖, 그 시작을 윤상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장지연은 그 연원을 圃隱 鄭夢周에서 찾았다. 다카하시와 달리 장지연은 유학과 성리학을 같은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고려 말부터 성리학의 단서가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는 세종 때 윤상 등이 태학에서 주자학을 강연한 것은 주자학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⁵³⁾

장지연이 세 번째로 문제 삼은 것은 「강연」의 ‘정암 조광조에 이르러 道學先生의 모양이 잡히고 儒者와 儒學者로 분리됐다’는 주장이다. 장지연은 조정암의 군자됨을 상술하며 그를 ‘大儒者’라고 높이 평가 한다. 따라서 조정암을 다카하시가 의미하는 ‘道學先生’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 비판한다.

장지연은 포은에서 정암으로 이어지는 학통을 正統으로 여기며 정암에 이르러 성리학이 한층 완비되었다고 생각한다.⁵⁴⁾ 그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다카하시가 정암을 儒者·儒學者의 시작으로 본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다. 정암에 관한 다카하시의 답변은 「2차 논쟁」에 제시된다.

(6) 花潭, 晦齋, 退溪와 栗谷에 대한 시각

다카하시는 「강연」에서 정암에서 나아가 서화담·이회재·이퇴계에 이르러 儒者와 儒學者가 명료하게 구분됐다고 주장한다. 장지연은 1차의 마지막 질문에서 이후 주기·주리

52) 高橋亨, 이형성 편역, (2001) 「조선 유학 대관」,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유학사』, 예문서원, p.44

53) 「蓋宋學云者는似指程朱氏而言이나然而程朱氏之學이非枯談空論者也皆實際性理之學而包含治平之術也라故로當程朱學之始來에도首先研究而得其妙者는鄭圃隱이是已라圃隱이爲成均博士時에以性理之學으로講論發越하야超出入意호디李牧隱이亟稱曰達可論理에橫說堅說이無非當理라호고推爲東方理學之祖云則圃隱之從來事業이富出於性理之學也라(…) 世宗朝尹祥金鉤金泮金末이皆精於性理之學故로相繼爲胃監호야以朱子集註로教授太學일시多所成就라」(嵩陽山人, <漫筆瑣語(四一)>,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5월 20일, 1면).

54) 장지연의 유학 계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6】 장지연이 보는 조선 유학 계통

鄭夢周[圃隱] → 吉再[治隱] → 金叔滋[江湖] → 金宗直[畢齊] → 金宏弼[寒暄堂] → 趙光祖[靜庵]

로 대표되는 다카하시의 이분법을 비판한다. 장지연은 화담, 회재, 퇴계를 賢者로 칭하면서 그들의 학문적인 우수성과 그 영향을 강조하며 다카하시의 입장을 반박한다.⁵⁵⁾

또한 장지연은 다카하시가 儒者和 儒學者를 구분하면서 政治家·經世家は 儒者라고 하고, 道德家·經學家는 儒學者라고 분류하면서도 율곡은 儒者 겸 儒學者로 칭하였으니 이는 直斷(=두루 살피지 않고 즉각 판단함)에 의한 평가라고 비판한다.⁵⁶⁾ 다카하시가 조선의 성리학자를 道學者로 정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격인 栗谷은 ‘道學先生에 빠지지 않았다[不陷於道學先生]’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퇴계와 관련된 문제는 조선의 유학이 성리학 일변도이며, 성리학자는 儒者가 아닌 유학자며 ‘性理學者(=道學先生)→枯談·空論’이라는 다카하시의 도식에 따라 조선의 ‘黨爭’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장지연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眞儒와 俗儒의 개념을 끌어 들인 것이다. 결국 (4), (5), (6)의 논쟁은 조선의 유교를 보는 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묶이게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1차 논쟁은 장지연이 다카하시의 「강연」에 대한 반박을 목적으로 전개되었다. 장지연은 儒者·儒學者 구별, 한대의 유학, 송대의 유학, 유학자의 枯談·空論, 조선 성리학의 개조, 서화담·이회재·이퇴계와 율곡에 대한 문제까지 총 6가지의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미처 논의되지 못한 부분은 다음 논쟁으로 이어진다.

이상의 논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5) 「蓋晦齊는 不幸 惟乙巳權奸用事之際 雖未能發展其所學 而竟遭竄逐而卒이니 然而退溪以謂先生之學 無授受之處而自奮於期學 而開然日章而德符於行 而炳然筆出而言垂於後者 是求之東方에 鮮有其倫이라 하니 其學問之正을 於此可微衣라 豈區々 俗學者之所可比擬哉아」

花潭은亦晦齊之同時而其學問이專主窮理格致之學 而透得玄妙之奧而其門人則有李土亭朴守庵諸賢 而皆以數學으로傳于世 하니此 1 花晦兩賢之所以異點也오(…)退溪는不可但以學問言이오若登用於朝則其施措事業이豈止於一經席師儒而已乎哉아故로其登門諸子가皆爲一世名儒고宣祖中興功臣이大半은退陶의門人則於此에亦可微其學術矣로다」(嵩陽山人, <漫筆瑣語(四二)>,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5월 21일, 1면).

56) 「今此講演之言論은終始以儒者與儒學者로分別對立 하니其意에蓋以政治家經濟家도謂之儒者라하고道德家經學家로謂之儒學者라 하니所以區別儒界故로又以栗谷으로直斷曰儒者而兼儒學者라하고又言終不陷於道德先生之窠라 하니其說이甚模糊 하니不能惹人之疑訝也로다(…)栗谷은實道學先生而兼王佐之才者也어늘今에反以謂不陷於道學先生之窠者 1 豈知言乎哉아」(嵩陽山人, <漫筆瑣語(四二)>,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5월 21일, 1면).

논 점	장지연	다카하시
儒者·儒學者 구별	구별 불가능	구별 가능
漢代의 유학	原始 儒學이 漢代에 다시 부활함	漢에 이르러 처음 儒學者가 생겨남
宋代의 유학	儒學의 道가 다시 천명됨	儒學者→道學者로 一轉
유학자의 枯談·空論	후세 俗儒·腐儒의 문제일 뿐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枯談·空論에 빠져 현실을 도외시함
조선 성리학의 개조	포은 정몽주	윤상
서화담, 이회재, 이퇴계와 율곡에 대한 시각	성리학을 완성시키고 많은 후배를 양성한 賢者, 율곡 역시 동일함	화담·회재·퇴계→도학선생 율곡 → 儒者 겸 儒學者

【표7】「1차 논쟁」에서 나타나는 논점 및 입장

2) 2차 논쟁

장지연의 두 번째 질문은 5월 24일자 《경성일보》에 글이 실렸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원문이 발굴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카하시의 6월 2일자 <答嵩陽山人>을 통해 두 번째 질문을 유추하고 그 논점을 정리하도록 한다.

2차 논쟁에서는 ‘한 이후 유학’과 ‘양명학’의 문제, ‘정암 이후 조선의 유교’의 문제에 관해 논의하는데, 1차 때 다카하시의 주장에 대한 장지연의 반박이 주를 이뤘던 반면 여기서는 장지연의 질문에 대한 다카하시의 비판이 주가 되어 진행된다.

2차 논쟁에서 제기된 3가지 논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漢 이후 儒學을 보는 관점

장지연과 다카하시는 한나라 이후의 유학사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1차 논쟁」에서 이미 한대 유학을 보는 시점을 달리한 두 사람은 한에서 송에 이르기까지의 유학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다카하시는 한 이후 당까지의 기간 동안 많은 유가의 저술이 전하며, 당태종이 오경을 공경하며 많은 학자들이 경석에 주석을 달아 대표적으로 韓退之(768~824), 李翱(772~841) 등의 유학자가 출현했다고 본다. 또한 송나라에 이르러서는 周茂叔(1017~1073)를 선배로 하여 많은 유학자들이 있었다고 지적한다.⁵⁷⁾

57) 「足下前漢以後로 儒學의 研究가 萎靡하얏다가 周茂叔의 出興을 待하얏다 始盛하얏다 今니 不倣은 儒敎가 宗教로 老佛에 侵蝕된을 見하얏스나 儒學의 研究가 漢以後에 全然萎靡함을 見치못하얏고 前漢以後唐에 至하얏는 間에 楊子, 徐子, 博子, 王子로 爲始하얏 儒家類의 著述이 今日에 傳하얏는 者 | 不少하얏고 唐太宗이 五經正義

장지연은 한 이후 유교가 쇠퇴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다카하시는 공자 이후 유교만이 성했던 시기는 없었다고 반박한다. 유교에는 늘 묵자, 황노학과, 도교 등의 대항 세력이 있었으며, 異敎 중 하나인 불교가 성했다고 해서 유교가 쇠퇴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⁵⁸⁾

또한 장지연은 ‘불교가 성함으로써 유교가 쇠퇴’했다는 대립적인 입장을 전개한 반면, 다카하시는 유교가 불교의 禪學을 받아들여서 더욱 高遠한 철학이 되었다고 주장했다.⁵⁹⁾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대체로 성리학을 ‘陽儒陰佛’, ‘外儒內佛’이라 하여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⁶⁰⁾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장지연은 한나라 이후 도교와 불교에 의해 유학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반면, 다카하시는 한대 이후 유학 연구가 더욱 성행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陽明學의 문제

다카하시는 장지연이 유학을 성리학과 동일시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양명학’의 문제를 거론한다. 다카하시는 장지연이 언급하지 않았던 陸象山(1139~1192), 王陽明(1472~1529)의 학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학문까지 포함되어야 장지연의 儒者·儒學者 일체설이 철저해 질 것이라고 하였다.⁶¹⁾ 이는 장지연의 성리학만이 공·맹 유교의 정통을 이

를欽定하고諸家經書註釋을施하고韓退之, 李翱等이出하며宋에至하는周茂叔의先輩로同馬光歐陽修가有하기前漢以後宋學이起하기까지通觀하면儒學의研究가益盛하였다는을言하지不可함이有하기오」(高橋天室, <答嵩陽山人>,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6월 2일, 1면).

58) 『魏普以後에儒敎가衰微함을說하였으나支那에는孔子以後에李朝와如히儒敎獨盛의世가無하였도다孟子時에既히楊墨二敎가有하여盛히儒敎를對抗하였고漢에黃老識緯神仙의學이有하였고周程朱가出한後라도佛敎가依然히盛하였는데他敎가후로儒敎가반다시衰하였다고謂기不能하며』(高橋天室, <答嵩陽山人>,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6월 2일, 1면).

59) 『朱子의學과禪學이同一理로宋學은巧히禪學으로써經書를設하여敎儒敎로하여吾高遠한哲學이되게한者임을不僞의信하는바라』(高橋天室, <答嵩陽山人(前承)>,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6월 4일, 1면).

60) 洪元植(2005) 『장지연과 다카하시 도오루의 ‘儒者·儒學者 불이·불일’ 논쟁』, 『오늘의 동양사상』 제 13호, 예문서원, p.278

61) 「(…)足下の主張은畢竟程朱의學으로써孔門傳受의心法을得한者로程朱는孔門의顔子曾子오程朱의學을한者는皆儒者라함에歸宿함과如히程朱의學을奉한者는宜히立論이此에出할것이自然이나陽明의學을奉한者는亦是心即理知行合一으로써孔門傳授의心法이라하고陸象山王陽明은即孔門直弟子와無異하고其學을奉한者는皆儒者라하리니不僞은足下の漢宋儒學者는皆儒者오儒學者가안이라는議論은陸象山王陽明도包含되고야비로소徹底함을信하노라」(高橋天室, <答嵩陽山人>,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6월 2일, 1면).

어받았다는 도통적 사고관에 대한 지적으로 볼 수 있다.⁶²⁾ 장지연은 유학사를 이야기하면서도 양명학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유학의 범주를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

다카하시의 이와 같은 지적은 두 사람의 학적 배경이 ‘지상논쟁’을 야기했음을 암시한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의 학문적 배경의 차이가 두 사람의 사상의 근원에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리학을 敎條化하고 異學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던 ‘한국의 학문 풍토’, 그리고 성리학, 양명학 이외에도 實學派, 古學派, 國學派 등 多様な學派의 多様な 이론들이 개진되었던 ‘일본의 학문 풍토’가 이 두 사람의 논의에서 첨예하고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⁶³⁾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왜 다카하시가 儒者·儒學者 구분에 ‘實踐’이라는 항목을 최우선으로 넣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근대 일본의 양명학적 사고관이 작용한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다카하시가 日本의 개념을 가지고 한국유학사를 서술하려고 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근대 明治 이후 일본이 ‘宋學’·‘주자의 학문=朱子學’보다는 實踐·實行을 중시하는 ‘왕양명의 학문’=‘陽明學’을 중시해 간 경향과 맞물려 있다.⁶⁴⁾ 다카하시가 성리학을 비판하는 근거나 시각은 ‘실천’을 제일로 하는 근대 일본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다.

(3) 靜庵 이후의 조선 儒學

다카하시의 『1차 논쟁』에서 장지연이 정암에 이르러 조선 성리학이 완성되고 진유가 배출되었다고 한 주장에 대해, 특히 장지연의 眞儒·俗儒의 구분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다카하시의 정암 이후 眞儒들이 계속 배출되었다는 장지연의 말대로라면 어째서 조선의 정세는 기울어갔느냐고 반론한다.⁶⁵⁾

62) 洪元植(2005) 「장지연과 다카하시 도오루의 ‘儒者·儒學者 불이·불일’ 논쟁」, 『오늘의 동양사상』 제 13호, 예문서원, p. 278.

63) 宋榮七(1991) 「양명학(陽明學)의 일본적 수용전개(受容展開)에 관하여」, 『동방한문학』 7, (동방한문학회, p.55

64) 崔在穆(2008) 「鄭寅普 ‘陽明學’ 형성의 知形圖」, 『東方學志』 제143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pp. 42-43

65) 「靜庵以後에眞儒가輩出하얏스면政道ㅣ益振호고國運이益盛하얏슬터인디李朝의有識者는國初에最히政道가振호고國運이亦盛하얏다論함이可怪로다同様の理路로由호야彼の禮論이나人性物性異同의論爭이나眞儒가生命을賭호야爭호政治上의大問題가되지만이치못할지니」(高橋天室, <答嵩陽山人>, <매일신보>(영인본) 1918年 6月 2日, 1면).

다카하시는 조선의 국운이 기울게 된 원인을 ‘禮論이나 人性物性異同의 論爭’, 즉 유학자들의 당쟁에서 찾으려 한다. 조선의 정치가 유학과 깊은 연관관계에 있음을 파악할 때 다카하시의 이러한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현대 한국 유학자들의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결론은 조선 性理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왜곡에서 나온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⁶⁶⁾ 그러나 장지연은 儒者·儒學者 구분에 휩싸여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충분한 비판을 제기하지 못했고⁶⁷⁾ 논쟁은 다시 첫 질문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2차 논쟁』은 1차 논쟁에서 미처 정리되지 못했던 한 이후 유학 문제, 양명학의 문제, 정암 이후 조선의 유교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다뤄졌다.

이상의 논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논 점	장지연	다카하시
漢 이후 유학을 보는 관점	주류계가 나타나기 전까지 유학의 연구가 단절됨	유학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음
양명학의 문제	언급하지 않음	실천을 중시하는 양명학자가 오히려 儒者라 할 수 있음
정암 이후의 조선 유교	정암 이후 유교가 성함 다카하시의 비판은 일부 俗儒·腐儒의 이야기	정암 이후 유학자들 (장지연이 말하는) 진유라 볼 수 없음

【표8】『2차 논쟁』에서 나타나는 논점 및 입장

3) 3차 논쟁

3차 논쟁은 1915년 5월 27일 《매일신보》에 실린 장지연의 <更問疑義于 高橋先生> 과 같은 신문 6월 3일에 실린 다카하시의 <答嵩陽山人>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3차 논쟁』은 두 사람의 가장 큰 견해의 차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차까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던 논쟁은 이제 두 가지의 논점으로 압축되는데 그 첫 번째가 儒者, 儒學者의 구별문제 두 번째가 다카하시의 한국 유학사 비판 문제이다. 그리고 논쟁의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장지연과 다카하시 사이의 용어[개념]

66) 尹絲淳(1976) 『高橋 亨의 韓國 儒學觀 檢討』, 『한국학』12, 영신아카데미한국학연구소, pp. 22-23.

67) 洪元植(2005) 『장지연과 다카하시 도오루의 ‘儒者·儒學者 불이·불일’ 논쟁』, 『오늘의 동양사상』제 13호, 예문서원, p 282.

문제 역시 주목할 만 한 문제이다.

(1) 儒者·儒學者 구별에 관한 재논의

장지연은 다카하시의 5월 25일자 <答嵩陽山人>에 대해 5월 27일《매일신보》에 <更問疑義于 高橋先生>이란 글을 발표한다. 장지연은 여기서 儒者·儒學者가 나눌 수 없다는 자신의 의견을 거듭 강조한다.⁶⁸⁾ 다카하시는 ‘儒者도 儒學者도 學者를 지칭’한다는 장지연의 주장에 대해서 ‘奇異’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장지연에 따르면 學者와 實際家 또한 같은 것이 되는데, 이 둘의 구분이 없다는 이야기는 臆說이라는 것이다.⁶⁹⁾

다카하시에게서 儒者·儒學者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실천성’에 있다. ‘몸소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는 ‘儒者’이며, 그 ‘가르침을 연구하는 자’는 ‘儒學者’인 것이다. 장지연이 철저하게 일체론의 입장에 서 있다면, 다카하시는 그 이분적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카하시에게는 훈고학자나 성리학자가 ‘실천철학 전공자’일 뿐, 유교의 본뜻을 ‘행’한 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장지연은 훈고학자나 성리학자들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修身의 學을 소홀히 한 것뿐이지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장지연의 논리에 따르면 孔門의 제자들이 한대 혹은 송대에 태어났으면 훈고학자나 성리학자가 되었을 것이며, 반대로 程·朱로 하여금 孔門에 태어나게 했으면 성리의 연구에 매진하지 않았을 것이라 한다. 즉, 孔門의 제자이든 정주든 儒者라고하면 儒者요 儒學者라고 하면 儒學者로 호칭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둘을 구분할 수 없고, 단지 그 상황에 따라 공부의 방법을 달리한 것뿐 본질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⁷⁰⁾

68) 「儒는 儒學之儒故로 有君子小人之別也라 然則 儒者與 儒學者가 均是 學者則 不可以 區別也」明矣로다(…)蓋其時勢之不得不然者 莫非故意 拋棄 修身之學而 流於 訓詁者也라 然이나 此를 謂之 訓詁之學則 可커 니와 謂之 儒學者而 與 儒者로 區別言之 恐不稱當也 一가 恐노라」(嵩陽山人, <更問疑義于 高橋先生>,《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5월 27일, 1면).

69) 「論語一句의 講義를 聽고 終身 服膺하야 德行의 市民된 者는 即 儒學者로 萬卷의 書를 讀고 善惡의 標準이 如何호고 思索호는 實踐哲學 專攻者는 即 道德家라 是는 殆 奇異함을 禁치 못호는 것도 다 是 設이 成立호라 면 社會의 一切人은 是는 學者라 할가 社會에 是 學者라 호는 者는 一人도 無호는 前提가 可無치 못호는 지니 兎지 學者 實際家가 皆 이라 故로 區別이 無호는 說破호만 若호리오」(高橋天室, <答嵩陽山人>,《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6월 3일, 1면).

70) 「若使 程朱氏로 生乎 孔門則 不拘 於 性理之研究也라 雖然이나 宋儒之學이 以 性理之設로 爲 畢生 事業者는 實未 免 迂拙之歸也로 다 然而 此를 謂之 儒學者而 與 儒者로 區別言之 豈 其得當乎哉아 一言以蔽之호고 孔門之 儒者도 即 儒學者로 漢儒 訓詁之 學者와 宋儒 性理之 學者도 均是 儒學者也라 不可 分別於 儒者 學者호 若其 資格之高下等給호는 從 時代之 盛衰汚隆이 子有 差別矣라 호노니 未知 高明之見은 以爲 何如也로 다」(嵩陽山人, <更問疑義于 高橋先生>,《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5월 27일, 1면).

이렇게 儒者·儒學者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을 그 합일점을 찾지 못한다. 왜냐하면 다카하시의 분류법을 장지연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다카하시 역시 장지연의 도통론적 사고관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완결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이 논쟁의 의미가 상실되거나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유학사를 조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주요한 시각이 이 논쟁 속에서 그대로 빛을 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 의미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2) 韓國 儒學史에 대한 비판

장지연이 『3차 논쟁』에서 儒者·儒學者 구분을 다시 문제 삼아 이야기하는 데 비하여 다카하시는 한국 유학사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둔다. 다카하시는 조선 유학자들을 枯談·空論에 빠졌다고 비판한다. 이에 장지연은 일부 俗儒·腐儒의 이야기일 뿐이라 반박한다. 그러나 다카하시는 진유·속유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카하시는 조선의 枯談·空論의 문제가 단순히 몇 사람의 유학자 때문이 아니라 성리학 그 자체에 있음을 강조한다. 성리학은 修身의 학이고 人格의 학이지만, 治人의 공부는 아니라고 비판한다.⁷¹⁾

다카하시는 조정에서 당파를 나눠서 성리를 논하고 예법을 논한 것에 대해 ‘철학자’의 연구대상이지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며 비판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腐儒·小人 등의 개념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⁷²⁾

결국 다카하시는 성리학 자체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조선은 性理 연구에 빠져서 아무리 도덕군자 또는 현자라도 성리를 연구하지 않으면 儒者라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로써 폐쇄적인 학문을 했다고 비판한다. 다카하시는 조선의 성리학이 예법 등의 문제를 정치로 가져 왔으며 그 결과 철학적 문제로 당파가 나뉘었다고 보았다.⁷³⁾ 이후 조선 유

71) 「小人이何代無之며何時無之리오不_不倭은程朱學者의經綸은上自國王으로不至胥吏히皆我와갓치性理學者되지만이면到底히實行키不能_不底者가안인가疑_不노라程朱의學은心學이오收養의學이오人格의學이라然이나아모리書齋에在_在히야理氣心性의研究에達함이有_有홀지라도곳씨治人의功夫가終_終히앗다謂치못홀지오」(高橋天室, <答嵩陽山人>,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6월 3일, 1면).

72) 「湖洛黨의論戰中人性獸性相同乎아不相同乎아_아는等이亦然_然히는는哲學者의研究問題오朝廷의問題될것이안이라事가此에至_至함이單히其時의儒의大多數가腐儒小人儒됨에만歸함은史의因果를不重_不는設이니須히源頭를派_派히아討_討尋치안이치못홀지로다」(高橋天室, <答嵩陽山人>,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6월 3일, 1면).

73) 「程朱의學을_을호는者ㅣ專_專히性理를尊尙_尙고性理에達_達하면儒者의能事가了_了히앗다_아孔孟始祖의性理를視_視함에甚히重치안임을忘_忘히앗도다孔子는罕言뿐이니曰性相近이라_고孟子는曰性善이라_고야人慾을遏

학사를 서술하면서 그 특징으로 고질적인 당파성을 든 다카하시의 조선 유학사 인식 태도를 여기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하겠다.

(3) 用語의 문제

논쟁에서 표면적으로 문제시 되지는 않았지만, 장지연과 다카하시가 합의를 보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이 바로 ‘용어[어휘, 개념]’의 문제이다. 다카하시는 이미 2차 논쟁에서 용어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⁷⁴⁾

다카하시에게 道學者·道學先生은 性理의 궁극에만 매달려 현실을 도외시한 사람을 일컫는 데 반해 장지연에게 道學者는 堯·舜·禹·湯·文·武·周·公의 道를 이어받은 자로서 다카하시에게 있어서는 儒者와 그 의미가 동격이다.⁷⁵⁾ 다카하시는 여기에 송학을 ‘性理學’이나 ‘理學’이라고 하지는 제안을 하지만 받아들여지진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카하시는 자신이 사용하는 어휘가 일본 明治時代의 어휘임을 밝힌다.

다카하시는 儒者·儒學者, 道學者·道學先生 등의 어휘는 일본 明治學界에서 새롭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그것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⁷⁶⁾ 이에 대해 장지연은 周漢 이래로 통용되는 중국의 어휘를 쓰는 것이 타당하지 일본의 새로 나온 어휘를 쓸 필요가 있는지 反問한다.⁷⁷⁾

이상에서와 같이 儒者·儒學者의 기본적 개념에서부터 두 사람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

고天理를存하는意뿐이며其外孔孟의遺書는皆五倫五常의平易著實한實踐道德이안이면則利用厚生의活學이라此를忘호고彼를爲主호야如何히德行君子라도性理에昧호면儒라稱치안코如何히賢相名將이라도性理에達치못호면儒로써許치안코世界の進歩에을閉호고目을瞑호야獨自以爲大儒라호며孔孟의道로써性理學者의專賣를作호야도다或은曰孔門弟子도地를易호면皆然인디時勢의變遷이오本軀의變이안이라호나는孔子門弟와性理學者와는地를易호야도決코不同호다호는同時에成立호는設이될뿐」(高橋天室, <答嵩陽山人>,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6월 3일, 1면).

74) 「道學의義解에對호야는足下의意를十分了解키不能함을遺憾호노라宋學을道學이라謂호고宋學者를道學者道學先生이라稱호은我國一般의用語法이라히스니足下가此를儒學과同樣으로用코져호도固隨意而已然則宋學을性理學乃至理學이라稱호면如何호」(高橋天室, <答嵩陽山人>,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6월 2일, 1면).

75) 「自堯舜禹湯文武周公으로其相傳之學이即道學也오儒學之外에非別有所謂道學也니」(嵩陽山人, <漫筆瑣語(四〇)>,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5월 19일, 1면) 참조.

76) 「夫儒者儒學者,道學者,道學先生學究等의文字는明治學界에서新히案出호호오반다시支那古用의意義와不同호이其意則不倣의第一復書에此를悉호야노라」(高橋天室, <答嵩陽山人>,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6월 3일, 1면).

77) 「儒者儒,學者,道學者之文字는明治學界之新按出者則與支那古用之意義로不必相同이라호야스니蓋儒者,儒學者,道學者之名稱은自支那周漢以來로通用者호非必日本之新出者나然而至其意義호야는自有其當호야互相適用호고非如足下之區別於實行與否者也니」(嵩陽山人, <又答高橋先生 所答(一)>,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6월 5일, 1면).

했음을 알 수 있다. 둘의 논쟁이 계속 해서 일치점을 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도 이런 기초적인 부분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됨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장지연과 다카하시 개인의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깔린 ‘학적 배경’의 차이에서 왔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일본 유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⁷⁸⁾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듯이 장지연과 다카하시는 서로의 관점을 고수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장지연의 ‘민족주의적’ 방법에 입각한 한국 유학사와 다카하시의 ‘일제 어용학자’가 쓴 한국 유학사의 차이로 인식되어 왔다.⁷⁹⁾

그런데, 장지연 일제 강점기에 민족주의적인 성향도 보인 반면 친일 행적을 보이기도 해서 학계에서 ‘친일’ 혹은 ‘민족주의자’ 및 ‘친일과 민족주의가 혼재’했다⁸⁰⁾는 평가들이 있다.⁸¹⁾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장지연의 친일이나 민족주의의 여부에 관하여서가 아니라 ‘지상논쟁’의 흐름과 핵심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추후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78) 일본 학자, 정치인들의 ‘일본적 儒學’의 전통 때문에 한국의 유학 전통을 이해하는데 오해와 오산이 있었음은 崔在穆, 『伊藤博文의 韓國儒敎觀』, 『伊藤博文と 韓國統治 - 初代 韓國統監をめぐる百年目の検証 -』이 책은 『한국과 이토 히로부미』란 제목의 한국어판으로 동시 출판(선인, 2009)], 伊藤之雄・李盛煥 編著(2009),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참조 바람.

79) 李承律(2004) 『日帝時期 ‘韓國儒學思想史’ 著述史에 관한 一考察』, 『東洋哲學研究』第37輯, 서울: 東洋哲學研究會 p.44

80) 박선영은 그의 논문에서 장지연의 ‘친일’이라는 문제를 『변질’ 내지는 ‘친일’로서 규정해버리기에 앞서 그의 말년의 행적 속에는 ‘친일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이 혼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박선영(2009), 『장지연의 ‘친일’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日本研究』제11집, 고려대학교 일본학 연구센터, 222쪽 참조]

81) 장지연은 《매일신보》 등에 일제의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내용의 논설을 실었다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그 친일 행적이 논란시 되어 왔다. 2005년에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발표한 총 3090명의 사전수록 예정인물 1차 명단 가운데 장지연이 포함되어 있기도 해서 그 논란은 더욱 불어났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역시 『朝鮮儒敎淵源』을 집필하는 등의 다른 측면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김재현 경남대 교수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1915년 이후 위암의 매일신보 글을 친일 행위로 볼 여지는 있겠지만 같은 시기 민족문화에 대한 글들을 실어 이를 ‘조선유교원원’이라는 책으로 묶어 내는 등 다른 측면이 있는 만큼 보다 섬세하고 신중한 접근과 위암의 생애와 사상 전체 맥락을 고려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장지연의 친일과 민족주의적 행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 진위를 단정 짓기 어려우며 보다 명확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권혜선 기자, 『위암 장지연 ‘친일사전’ 포함 논란 가열』, 미디어 오늘, 2005년 8월 29일 참조]

논 점	장지연	다카하시
儒者·儒學者 구별에 관한 재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자학적 도통론에 입각하여 하나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학적(사상사학적)인 방법으로 구분
한국 유학사에 대한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카하시의 주장은 모두 현실의 儒·腐儒에 해당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은 공자의 원래 목적을 따르지 않고 枯談·空論에 빠졌음 철학적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가져와 당파가 나뉨
용어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의 정의를 따름 儒者·儒學者 등의 어휘는 의미는 같으나 모양이 다른 동음이어 道學者(道學先生) = ‘堯·舜·禹·湯·文·武·周·公의 道’를 따르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명치 시대의 정의를 따름 기준에 따라 儒者·儒學者, 性理學者 등의 어휘를 구분 道學者(道學先生) = 실천적 측면을 버려 둔 채 性理 연구에 몰두하는 사람

【표9】 「3차 논쟁」에서 나타나는 논점 및 입장 차이 정리

4) 논쟁의 마무리

장지연과 다카하시는 이제까지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3차에 걸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마지막 3차 논쟁 이후 다카하시는 한 차례 더 답변을 달았고⁸²⁾ 장지연은 두 차례 더 다카하시의 의견에 반대하는 글을 남겼다.⁸³⁾ 그러나 장지연의 글에 다카하시는 더 이상 답변을 달지 않는데, 이로써 신문을 매개로 팽팽하게 전개되었던 두 사람의 논쟁은 끝을 맺게 된다.

다카하시의 연보에 따르면 이 논쟁은 다카하시가 大邱로 轉任을 가게 되어서 채 끝맺지 못했다고 되어 있다.⁸⁴⁾ 그러나 6월 4일자 다카하시의 글 <答嵩陽山人(前承)>의 첫 부분을 보면 다카하시가 논쟁을 끝맺으려 ‘의도’했음을 볼 수 있다.

不佞이足下의下問에對하야前後答復함이三回인디其一은朝鮮文으로써每日申報에寄하야專히儒者儒學者의區別을述하고其二三은日文으로써京城日報에寄하야既히意中을悉하얏스즉 다시載書할意가無하노라(…) ⁸⁵⁾

82) 高橋天室, <答嵩陽山人(前承)>, 《매일신보》(영인본) 1915년 6월 4일, 1면.

83) 嵩陽山人, <又答高橋先生 所答(一)>, (二),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6월 5-6일, 1면. 이 두 편의 글은 그 내용이 1·2·3차에서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데 그러므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84) 본 논문의 II장 「1. 논쟁 발단의 경위」의 인용문을 참고 바람.

85) 高橋天室, <答嵩陽山人(前承)>, 《매일신보》(영인본) 1915년 6월 4일 참조.

다카하시는 3차에 거친 논쟁으로 서로의 의중을 파악했으므로 다시 논쟁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고받은 논쟁 이외의 하나의 글이 원인을 제공 했는데 바로 장지연이 잡지 『佛教振興會月報』 5월호에 실은 『儒佛一體辨』⁸⁶⁾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지연은 유교와 불교를 하나의 맥락에서 파악하며, 그 핵심을 유교로 두었다. 이에 대한 다카하시의 반응은 ‘宏大’하다는 단어로 일축된다.⁸⁷⁾

다카하시는 불교까지 유학에 포함시키려는 장지연의 생각에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⁸⁸⁾. 자신과 장지연의 사상적 거리가 좁혀질 수 없음을 장지연의 『儒佛一體辨』을 통해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써 총 3차례, 20여일에 거친 장지연과 다카하시의 ‘지상논쟁’은 끝나게 되었다.

결론

이상에서 장지연과 다카하시의 ‘지상논쟁’을 1·2·3차로 나누어 논점별로 살펴보았다. ‘지상논쟁’은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두 학자가 한국 유학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儒者·儒學者 구분’, ‘한국 유학사를 파악하는 시각’ 등 한국 유학사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문제들이 그 핵심에 있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상의 논의에서 밝혀진 ‘지상논쟁’의 논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儒者·儒學者’를 구분할 수 있는가? 장지연은 주자학적 道統論에 입각해 둘의 구분을 부정했다. 반면 다카하시의 철학(사상사)적 기준으로 修己治人을 실천한 孔門弟子들까지 儒者라고 할 수 있지만 이후 訓詁學者, 性理學者는 유학을 전공하는 儒學者라고 주장했다.

둘째, 현대의 유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장지연은 秦에서 끊겼던 유학의 도가 다시 부활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다카하시의 한에 이르러 儒學 전공의 儒學者가 처음 생겨

86) 嵩陽山人(1915), 『儒佛一體辨』, 『佛教振興會月報』 5月號, 佛教振興會本部.

87) 『如是觀來則足下の儒者儒學者無區別, 孔子の門徒, 漢唐宋儒一様の設은甚히宏大호者라 不佞은足下가老子敎를研究호면亦老子가即孔子, 道士가即儒者の論을出치안일가호노라』(高橋天室, <答嵩陽山人(前承)>, 《매일신보》(영인본) 1915년 6월 4일).

88) 『此에至호야不佞은更히足下의議論을交호必要를感치안이호얏고또호其勇氣가無호으로該辨을轉載호야써本論의結尾를作호노라』(高橋天室, <答嵩陽山人(前承)>, 《매일신보》(영인본) 1915년 6월 4일).

났다고 주장했다.

셋째, 송대의 유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장지연은 송에 와서야 한 이후 끊어졌던 유학의 도가 천명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카하시는 유학 연구는 계속 이어져 왔으며 송나라에 와서 儒學者들이 性理의 궁구에 치우쳐 道學者로 一轉했다고 보았다.

넷째, 조선의 유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장지연은 조선 성리학의 개조를 포은 정몽주로 보았으며 정암에 이르러 유교가 성했으며 퇴계에 이르러서는 弟子를 배출하는 등의 성과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다카하시가 비판하는 것은 현실의 俗儒·腐儒들 때문이라 항변했다. 다카하시는 반대로 정암에서부터 道學先生의 단서가 보이며 퇴계 이후 조선은 枯談·空論에 빠져 사실을 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조선이 조정에서 철학적 문제를 다루고 당파가 나뉜 것은 단순히 몇몇의 俗儒들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유학의 근본적 성격에 있다고 보았다.

다섯째, ‘儒者, 儒學者, 道學者’의 개념은 어디에 근원하는가? 장지연은 『논어』 등 중국 경전에 입각하여 ‘儒者=儒學者=道學者=堯·舜·禹·湯·文·武·周·公의 道를 따르는 자’라는 도식 안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반면 다카하시는 일본 명치 시대의 근대적 방법론에 따른 분류를 통해 儒者, 儒學者, 訓詁學者, 性理學者 등으로 철저히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밖에 양명학에 관한 문제, 당쟁에 관한 문제 등도 ‘지상논쟁’에서 표면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하였으나 주목할 만 한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0】 ‘지상논쟁’에 나타난 주요 논점에 대한 장지연과 다카하시의 주장

논점	장지연	다카하시
儒者·儒學者의 區別	구별 불가능 儒者=儒學者=道學者	儒者は 修己治人の 실천가. 儒學者는 유학을 전공으로 삼는 사람들.(학문으로서의 유학)
漢代의 儒學을 보는 시각	漢代의 유학은 秦나라 때 억압당했던 유학이 부활한 것. (훈고학자들 역시 儒者임.)	공자 이전의 유학과 구분. 漢代에는 유학을 전업으로 하는 ‘儒學者’만 있었다.(훈고학자)
宋代의 儒學을 보는 시각	堯·舜·禹·湯·文·武·周·公으로부터 전한 學이 바로 도학이다. 유학=도학	성리학이 理氣·心性론에 빠져 현실을 도외시 해 道學이 되었다. 유학 ≠ 도학

한국의 유학을 보는 시각	유학은 고려말 정몽주로부터 들어왔으며 정암에 이르러 성하였다. 그리고 화담·회재·퇴계 등의 賢者로 유학이 발달했다. 다카하시의 비판은 腐儒·俗儒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유학이 전래된 것은 고려말엽이나, 성리학은 조선초 윤상에 의해 들어왔다. 정암에서 도학선생의 단서를 볼 수 있으며 화담·회재·퇴계 이후 理氣·心性론이 조선의 정치까지 지배하며 당파를 초래했다.
용어의 문제	중국의 전통적 분류법을 따름	일본 명치 시대의 근대적 방법론에 따른 학자군의 분류
한국 유학을 보는 시각의 차이	[민족주의], 도통론에 입각 조선의 유학 = 공맹의 전통을 이음	실천(실용)적 학문이 유학 조선의 유학 = 治人을 무시한 성리학 연구로 道學에 빠짐

이상에서 보이는 장지연과 다카하시의 대조적 관점은 이후 두 사람의 각 저서 즉 『朝鮮儒學大觀』(다카하시 도오루, 1910)과 『朝鮮儒教淵源』(장지연, 1917)에 그대로 이어진다. 장지연은 다카하시의 한국 유학사 서술 왜곡에 자극을 받아 『朝鮮儒教淵源』을 썼다고 알려지며, 다카하시 역시 자신의 저서 『李朝佛教』의 「序言」에서 “조선인의 머리에는 儒者와 儒學者의 차별이 없고, 儒敎와 儒學과의 구별이 없다.”⁸⁹⁾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지금까지 학계에 발표된 장지연과 다카하시에 관한 논문들은 ‘민족주의 시각에서 쓴’ 한국유학사와 ‘일제 어용학자가 쓴’ 한국유학사의 고정된 틀 안에서만 서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 논문은 종래의 「『민족주의 학자』와 ‘일제 어용학자’의 대립」이라는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그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 자체’를 객관적으로 정리·분석하는 데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실제로 장지연을 순수한 민족주의자⁹⁰⁾, 다카하시를 ‘일제 어용학자’라는 고정된 틀이 오히려 논쟁의 내용에 선입견을 심어주어 ‘근대적 학술의 성격’이나 ‘각 지역의 지식·문화 토대’라는 측면을 간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논쟁 자체’를 객관적으로 정리·분석함으로써 다카하시와 장지연의 ‘학문적 풍토’의 차이, 즉 두 사람의 기저에 깔린 ‘유학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紙上論爭’ 발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유학에 대한 그들의 인식 차이는 중국에서 시작된 유교가 일본과 조선이라는 각기 다른 지역의 고유 사상 속으로

89) 『朝鮮人ノ頭二ハ儒者ト儒學者ノ差別ナク、儒敎ト儒學トノ區別ナシ。』(高橋亨(1929), 『李朝佛教』, 東京: 寶文館, 17쪽 참조).

90) 실제로 장지연의 행적을 살펴보면 ‘친일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이 혼재하고 있었다(각주 79, 80 참조).

흡수되면서 각자 고유한 유학을 형성해나갔다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일관된 논지 전개를 위해 ‘紙上論爭’ 분석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 기저에 있는 사상적 인식 차이에 대해서는 일본과 조선의 유교 수용사 및 각 지역의 근대기 유교 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새로이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

■ 参考文献

『論語』.

『禮記』.

朱熹, 『論語集註』.

記者未詳, <經學史上의 雲養集>, 《매일신보》, 1915년 5월 15일.

嵩陽山人, <漫筆瑣語(三九)>,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5월 18일, 1면.

_____, <漫筆瑣語(四〇)>,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5월 19일, 1면.

_____, <漫筆瑣語(四一)>,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5월 20일, 1면.

_____, <漫筆瑣語(四二)>,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5월 21일, 1면.

_____, <更問疑義于 高橋先生>,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5월 27일, 1면.

_____, <又答高橋先生 所答(一)>,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6월 5일, 1면.

_____, <又答高橋先生 所答(二)>,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6월 6일, 1면.

高橋天室, <答嵩陽山人>, 《매일신보》(영인본) 1915년 5월 25일.

_____, <答嵩陽山人>, 《매일신보》(영인본) 1915년 6월 2일, 1면.

_____, <答嵩陽山人>, 《매일신보》(영인본) 1915년 6월 3일, 1면.

高橋天室, <答嵩陽山人(前承)>, 《매일신보》(영인본) 1918년 6월 4일, 1면.

박선영(2009) 「장지연의 ‘친일’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日本研究』제11집, 고려대학교 일본학 연구센터.

장지연(2009) 『조선유교연원』, 명문당.

崔在穆(2009) 「伊藤博文의 韓國儒敎觀」, 『伊藤博文と韓國統治 - 初代韓國統監をめぐる百年目の検証』, 伊藤之雄·李盛煥 編著,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崔在穆(2008) 「鄭寅普 ‘陽明學’ 형성의 知形圖」, 『東方學志』제143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이동희(2007)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의 특징에 대하여 - 다카하시의 『조선유학대관』과의 비교 -」, 『한국학논집』제35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洪元植(2005) 「장지연과 다카하시 도오루의 ‘儒者·儒學者 불이·불일’ 논쟁」, 『오늘의 동양사상』제13호, 예문서원.

박홍식(2005) 「다카하시 도오루의 조선 양명학 연구에 관한 소고」, 『오늘의 동양사상』제13호, 예문서원.

李承律(2004) 「日帝時代 ‘韓國儒學思想史’ 著述史에 관한 一考察」, 『동양철학연구』제37집, 동양철학연구회.

高橋亨(2001) 『다카하시 도오루의 조선유학사』, 이형성 편역, 서울: 예문서원.

朴性淳(2001) 「高橋亨의 朝鮮儒學史 研究와 그 反應에 대한 檢討」, 『韓國史學史學報』6, 한국사학사학회.

- 崔英成(2000) 『高橋亨의 韓國儒學觀 研究』, 『哲學研究』第74輯, 大韓哲學會.
- 장지연(1998) 『조선유교연원』1·2, 솔출판사.
- 崔英成(1997) 『韓國儒學思想史』V, 서울: 亞細亞文化史.
- 張志淵(1992) 『朝鮮儒教淵源』, 匯東書館.
- 琴章泰·高光植(1989), 『續儒學近百年』, 서울: 驪江出版社.
- 宋彙七(1991) 『양명학(陽明學)의 일본적 수용전개(受容展開)에 관하여』, 『동방한문학』7, 동방한 문학회.
- 강명관(1987) 『張志淵 詩世界の 변모와 사상』, 『韓國漢文學研究』9, 韓國漢文學會.
- 張志淵(1979) 『張志淵全書』8, 서울: 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研究所.
- 尹絲淳(1976) 『高橋 亨의 韓國 儒學觀 檢討』, 『한국학』12, 영신아카데미한국학연구소.
- 大谷森繁·中村完共編(1975) 『高橋亨先生年譜略』, 『朝鮮學報』第14輯, 朝鮮學會.
- 玄相允(1949) 『朝鮮儒學史』, 서울: 民衆書館.
- 高橋亨(1929) 『李朝儒學史に於ける主理派主氣派の發達』, 『朝鮮支那文化の研究 : 京城帝國大學 法文學會第二部論纂第一輯』, 東京: 刀江書院.
- 高橋亨(1929) 『李朝佛教』, 東京: 寶文館.
- 嵩陽山人(1915) 『儒佛一體辨』, 『佛教振興會月報』5月號, 佛教振興會本部.

■ 논문초록

키워드	지상논쟁(紙上論爭), 장지연(張志淵),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 다카하시(高橋), 《매일신보(每日申報)》, 『조선유학대관(朝鮮儒學大觀)』, 『조선유교연원(朝鮮儒教淵源)』, 유학자(儒學者), 유자(儒者) the Controversy on a Newspaper, Jang, Ji-yoen(張志淵), Takahashi Toru(高橋亨), Takahashi (高橋), Maelshinbo(《每日申報》), An Outline of the Chosun Confucianism(『朝鮮儒學大觀』), The Origin of Korean Confucianism(『朝鮮儒教淵源』), a Confucianist(儒學者), a Confucian(儒者)
<p style="text-align: center;">A Study on 'the Controversy on a Newspaper' of Chang, Ji-youen(張志淵) and Takahashi Toru(高橋亨)</p> <p style="text-align: right;">Choi, Jae Mok</p> <p>An intention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about 'the Controversy on a Newspaper' of Chang, Ji-youen(張志淵) and Takahashi Toru(高橋亨) through <i>Maelshinbo</i>(《每日申報》) in 1915.</p> <p>Chang Ji-yoen and Takahashi Toru are very important people who drew up a narration of the history of Korean thought. However, their view points are totally different. Through this controversy, we can realize that how different they are. This controversy started from the question of "Is it possible that we distinguish a Confucianist(儒學者) from a Confucian(儒者)?" And then, they dispute about 'the founder of Korean Confucianism(性理學)' and so on.</p> <p>The controversy was progressed three times of questions and answers. The view points on this controversy influenced their writing which are <i>An Outline of Chosun Confucianism</i>(『朝鮮儒學大觀』) written by Takahashi Toru and <i>The Origin of Korean Confucianism</i>(『朝鮮儒教淵源』) written by Chang Ji-yoen.</p> <p>This study tries to analyze by getting rid of a fixed idea that Chang is a nationalists and Takahashi is a Japan government-patronized scholar. Therefore, we can found why their thinking is different from their study environment. The understanding of a Confucianism based on their local history and traditional thought.</p>	
필자 인적 사항	성명(한글): 최재목 (한자): 崔在穆 (영문): Choi, Jae Mok 국문제목: 張志淵과 高橋亨의 '紙上論爭'에 대하여 영문제목: A study on 'the Controversy on a Newspaper' of Chang, Ji-youen(張志淵) and Takahashi Toru(高橋亨) 소속: 영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주소: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498 고산노변타운 202-306 전화: 053-810-2195, 010-7574-2195 E-mail: choijm@ynu.ac.kr
논문 작성 일시	투고마감일 : 2009. 7. 15 심사일 : 8. 15 심사완료일 : 9. 15